

영광 '군민의 상·행남효행상' 후보자 찾는다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오는 제47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와 효행으로 사회 모범이 된 군민에게 수여할 '군민의 상'과 '행남효행상' 후보자를 찾는다고 20일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7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9월 5일에 개최되는 '제47회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군민의 상'은 영광출신(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영광군이었던 사람) 또는 영광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였거나 어진 행실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명예를 빛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행남효행상'은 영광군 관내 10년 이상 거주자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 성인 1명, 고등학생 1명을 선발해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흥,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장흥군은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9개로 추가·조정하여 지난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2023년 추가된 항목 5개는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이다. 다만 ▲감염병 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이 예상되어 보험 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한편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 기관에 청구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군민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장성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마을 이·동장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성군이 지역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마을 이·동장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의 최前线에 있는 이·동장 교육을 통해 피해아동 조기 발견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양육문화를 확산해 가는 것이 목표다.

교육에선 아동학대 유형, 신고·보호 절차부터 아동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아동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달 초부터 시작해 8월까지 시행되며 현재 홍릉면과 장성읍이 교육을 마쳤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이점을 겪지 않게 하는 것



이 목표"라면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동 피해가 발생하면 장성군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등을 통해 가정기능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인기 폭발

입주자 50명 추첨 완료… 7월 입주 시작

2차분 추가 공급 예정… "8월 공모 참여"

화순군은 지난 18일 오전 화순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구북구 군수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청년을 위한 주거 공약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화순군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에 민간임대아파트가 다수인 반면 공실도 발생하고 있어,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은 작년 7월부터 준비를 시

작하여 22. 12. 주부영주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4월 말 입주자 모집 공고 후, 5월 초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입주자 선정을 추첨방식으로 결정해 지난 18일 오전 입주자 추첨식을 마쳤다.

추첨 행사는 서류접수 신청자 506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42명에 대해 추첨 기회를 제공했고, 이날 현장에 409명이 참석하여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첨 행사는 8시 30분부터 입장이 시작됐다. 정오 무렵 당첨과 미당첨



으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제1차 입주 분 50명이 확정됐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2차분 만원임대주택(50호)을 계획대로 추가 공급 할 예정이다. 오늘 텔락혔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8월 공모에 다시 참여해달라"라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당부했고, 당첨에 텔락한 참석자들은 2차 공급과 내년 공급분을 기대하며

아쉬운 밤길음을 돌렸다.

화순군은 "6월 말까지 선정된 입주자와 전대차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만원 임대주택 입주는 7월 3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부영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7월 입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남양,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개최

입주기업·군, 소통 활성화… 기업친화적 지원정책 홍보



남양군은 최근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내 일반산업 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관내 산업 단지 입주기업들과 군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남양군의 기업친화적 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농공단지 누리집을 통한 기업 간 거래(B2B) 기반 구축 등 농공단지 관련 사업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관내 농공단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전남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함께 소통했다.

현재 남양군에는 에코하이테크 담

양산업단지와 에코농공단지, 무정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등 4개의 산업 단지 총 223개 업체(종업원 2,308명)가 입주해 있으며, 산업단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단지별로 입주기업 경영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등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해 맞춤형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양=조승재 기자

나주, 고향사랑기금사업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나주시가 고향사랑기금 활용처 발굴에 나선다.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활용 방안을 두고 전 국민 아이디어를 수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나주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응모는 전 국민 누구나 시청 누리집, 이메일(kang7769@koreatxt.kr), 우편(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정책홍보실 고향사랑팀) 등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능률성 등을 평가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1명)은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2명)은 10만원의 시상금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시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로 배치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함평, 폭염 대비 한우 사육농가 축사환경 개선

28농가에 1억7500만원 지원… 축사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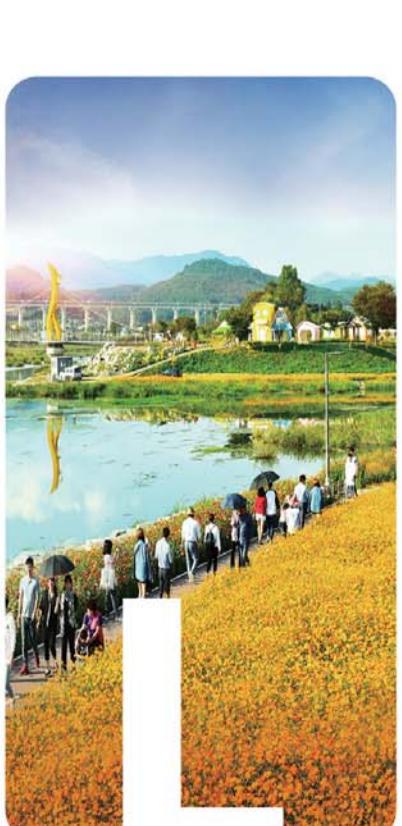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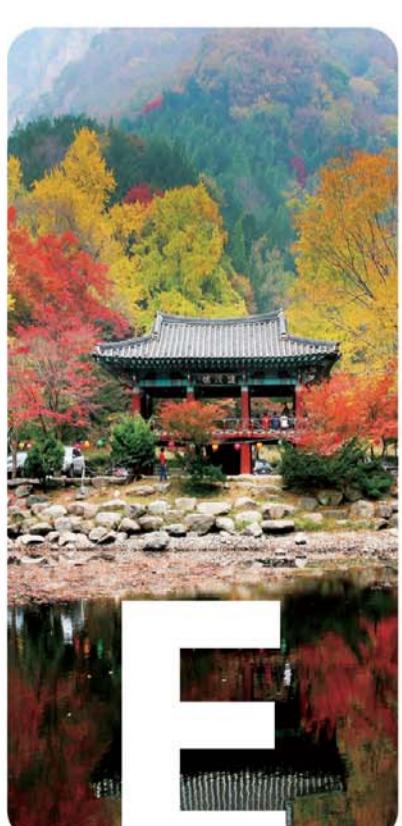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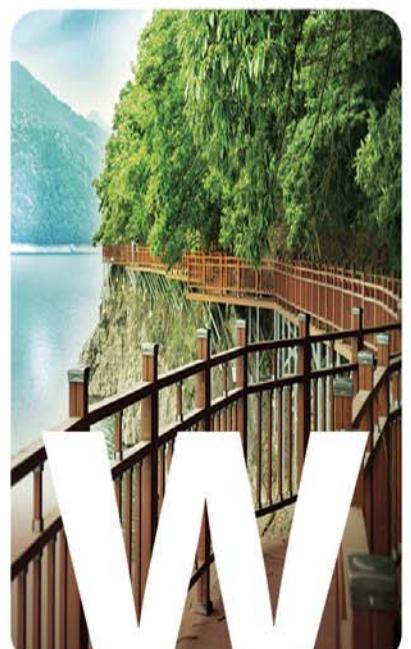
함평군은 축사 내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고온 피해 예방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내 고온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온 대비 기축 관리 요령을 수시로 농가에 전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지난 5월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축사 지붕 열차단재 지원 사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여름 지구온난화로 가축들도 축사 내 고온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온 대비 기축 관리 요령을 수시로 농가에 전파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색(色)채도시 장성에서 즐기는 색(色) 다른 여행

옐로우시티 장성